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역사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

**The History of Chinese-Korean Baduk in Jilin Province
- After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

이성우·김진환

Li Chengyu & Kim Jinhwan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Jilin Chinese-Korean Baduk by collecting data on Jilin Chinese-Korean Baduk scattered sporadically around publications such as Jilin Newspaper and Yanbian TV Radio Broadcasting Station to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history of Jilin Chinese-Korean Baduk. Through this, the history of Chinese-Korean Baduk in Jilin Province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each stag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a clear definition and district division of the Chinese-Korean people was created, and the Chinese-Korean people of this period learned from the sight of the Japanese playing Baduk before liberation. From this time on, it showed the beginning of Jilin Province Chinese-Korean Baduk.

Second, in 1978 Chinese-Korean Baduk started and the peak was the 1984 China-Japan Super Competition. Due to the influence of China-Japan Super Competition, there was also a Baduk class in Jilin Province that taught Baduk

to Chinese-Korean for the first time. Baduk competition was also held for Chinese-Korean.

Third, the leap period began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Many Koreans came to China and among them, there was a Baduk director who taught Baduk, and the language of the Chinese-Korean was similar to that of Korea, so they naturally trained a lot of Chinese-Korean Baduk players. In addition, several Baduk exchanges were conducted by connecting the Korean Baduk community and the Jilin Chinese-Korean Baduk Association. In addition, the Korean director, who teaches Baduk, has a history of send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Korea's Yoo Chang-hyuk and Yang Jae-ho's Baduk Dojo. During this period, the Yanbian Chinese-Korean Autonomous Baduk Association were founded and the Chinese-Korean School in Jilin Province officially promoted Chinese-Korean Baduk. The first official Chinese-Korean Baduk competition hosted by the Yanbian Korean Baduk Autonomous named 'Yanbian Chinese-Korean Baduk championship' was held from 1988 to 1995, and the school selected Baduk as a regular subject for first and second graders after school.

Fourth, the decline lasted from 2010 to the present. From 2010 to 2020, about 10% of Chinese-Korean living in Jilin Province are living in other cities or foreign countries in China, especially Korea, and the trend is gradually expanding. The decline in the Chinese-Korean population is the biggest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Korean Baduk. In addition, the Communist Party's "minority national united front" policy also weaken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Korean.

Keywords: Chinese-Korean Baduk, Periodization, Chinese-Korean Baduk Magazine

I. 서론

이 연구는 길림성 조선족 바둑사료의 발굴, 정리, 수집을 통해 길림성 조선족 바둑이 중국 한족 지방과 다른 점, 즉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특수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중요한 사건과 시기에 따라 시대를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인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역사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사회적 이벤트, 영향력 있는 사건 또는 인물의 출현과 조선족 바둑계의 참여변화에 따라 여명기, 발전기, 도약기, 쇠퇴기 총 네 단계로 나누어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특징을 분석했다.

길림성 조선족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길림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서, 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길림성 조선족의 바둑에 관한 기록은 2005년 전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져 있지 않거나 연구되어진 적이 없었기에 도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는 길림성 조선족 출판사에서 출판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이전의 기록은 길림성 조선족 바둑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바둑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보완했고, 2005년 이후부터는 길림성 조선족 출판사에서 출판한 <길림신문>, <연변라디오TV방송국>, <연변일보>에 실린 기사, 인터뷰, 칼럼, 회고록을 수집 정리했는데, 그 결과 <표1>과 같이 총 168페이지의 자료가 모아졌다.

<표1> 길림성 조선족 바둑 잡지, 사이트 관련 자료 수집 현황

도약기	분량	쇠퇴기	분량
1992	1	2011	21
1993	0	2012	27
1994	0	2013	19
1995	0	2014	15
1996	1	2015	20
1997	0	2016	17
1998	1	2017	8
1999	1	2018	11
2000	4	2019	11

2001	1	2020	8
2002	2	2021	5
2003	1	2022	6
2004	2		
2005	4		
2006	8		
2007	9		
2008	21		
2009	24		
2010	25		
합계	105	합계	168

II. 여명기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1949~1984)

1. 해방 전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 조선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었다. 3년간의 국공내전¹⁾ 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조선족에 대한 명확한 지역 및 인종 구분이 생겼다.

일본이 ‘만주사변’²⁾을 일으키고 중국 대륙에서 세운 위만주국은 인종 차별적인 카스트제도를 도입했다. 신분이 더 높은 조선인은 일본인을 위해 일할 기회가 중국인보다 많았다. 예를 들어 신분이 높은 일본인의 마부, 통역으로 일하거나 당시 일본인들 주위에서 공부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바둑의 현대화가 늦은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30년대의 일본 바둑은 이미 현대화에 들어섰고, 중국 난징을 방문한 기도보국회(棋道报国會)³⁾가 있을 만큼 바

-
- 1) 국공내전은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중국 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다. 제1단계는 1927년부터 1937년까지, 제2단계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지속되었다. 일반적으로 3년 내전이란 제2단계를 가리킨다.
 - 2) 만주사변은 중국 길림, 흑룡강, 요녕, 내몽고 등 동북지방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제국관동군이 1931년에 일으킨 전쟁이다.
 - 3) 기도보국회(棋道报国會)는 쇼와 16년(1941년)에 바둑, 쇼기 기사들이 세운 전쟁 협력조직이다.

독문화에 창달에 몰두했다. 1941년 위만주국에서 만주기원(별칭 일본기원 만주 별원)이 설립되었고, 위만주국에서 공식적인 일본인 바둑조직이 되었다.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 위만주국에서 일하는 일본인 변호사, 의사들이 바둑을 많이 두었고 주위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은 구경하며 바둑을 배웠다고 한다. 즉 위만주국의 조선인들은 공식적인 바둑 수업을 받지 않은 채 일본 식민자들의 대국을 보고 바둑을 배운 셈이다.

1945년 일본 항복 전까지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조선 이민은 170만에 달했다. 1945년 일본 항복부터 1952년까지 총 60만의 조선이민은 조선반도로 돌아갔고, 1953년 제1회 중국 인구조사의 수치에 따르면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75만에 달했다. 그 중 일본인 수하에서 일하며 바둑을 배운 조선족이 길림성 조선족 바둑 제1세대이다.

2. 해방초기 및 문화대혁명 시기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

1세대 길림성 조선족 바둑인들은 대부분 연변 출판사에 취직했다. 그들은 연변 출판사 내부에서 바둑을 두며 일반인과 그 자손에게 바둑을 가르쳤다. 즉 비 공식적인 바둑 보급을 시작했다.

1세대 길림성 조선족 바둑인들의 자식과 바둑을 배운 일반인들은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제2세대이다. 60년대 초기 바둑을 즐긴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지식분자⁴⁾들이다. 제2세대 조선족 바둑인들은 대부분 연변대학교의 학생들이었다. 특히 연변대학교 수학과에서 바둑을 즐기고 보급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은 후배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졸업 후 연변제1중학교, 연변제2중학교 등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에도 바둑시합에 참여하면서 길림성의 바둑 보급을 추진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많은 학교, 공장 등이 문을 닫아 사람들은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었다. 바둑은 시간을 때우는 최고의 놀이로서 당시 사람들의 환

4)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킴.

영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유명한 바둑인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1) 오국안(吳國安), 오국성(吳國星) 형제

오국안과 오국성 형제는 당시 길림성에서 유명한 조선족 바둑인이다. 두 형제는 각각 1928년과 1936년에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태어났는데, 오씨 가족은 바둑을 매우 좋아했다. 오국안, 오국성 형제뿐만 아니라 오하도(吳河圖)와 오철수(吳哲洙)도 당시 유명한 바둑 애호가이다. 오국안과 오국성은 당시 연변 출판사와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취직하는 동시에 동료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윤석걸(尹錫杰), 윤석수(尹錫洙), 김송해(金松海) 등 조선족 바둑기사들과 함께 여러 번 조선족을 초대하는 바둑 모임을 주최했다. 그중 형 오국안은 연변출판사에서 퇴직 후 사천 촉용기예출판사(原 성도시대출판사)에 취직하고 바둑에 관한 번역서와 저서를 여러 편 출판했다. 예를 들어 목진석 9단의 <정석과 전반의 합리적인 배치>를 번역하여 <기예(棋藝)>잡지에 올렸고, 한국 4대천왕 시리즈에 해당하는 <조훈현대국집(曹薰鉉對局集)>과 <이창호대국집(李昌鎬對局集)> 등 바둑 저서를 출판했다.

2) 서우홍(徐宇宏)

길림성 조선족의 바둑 보급을 이야기할 때 서우홍을 빼 수 없다. 서우홍은 조선족이 아닌 상해(上海)에서 태어난 한족이다. 문화대혁명시기 ‘지식청년上山下乡’⁵⁾의 영향을 받아 연변 조선족자치주로 내려왔고, 도로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연변 조선족자치주 화룡시 두도진 두도제4중학교(和龍市頭道鎮頭道4中) 수학 교사로 취직했다. 서우홍은 상하이에 있을 때부터 상해 바둑팀의 코치를 맡았을 만큼 실력이 뛰어난 아마추어 강자였다. 그

5) 문화대혁명시기 도시의 학생이나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 대중과 함께 지내는 운동을 말한다.

는 길림성에 오자마자 길림성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바둑 모임에서 모든 아마추어 강자를 이기고 길림성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비록 그때까지 공식적인 시합은 없었지만, 조선족과 한족 바둑기사들은 모두 서우홍을 길림성 아마추어 1인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여가시간에는 조선족과 한족 학생들에게 바둑을 가르쳤다. 서우홍 선생한테 바둑을 배운 길림성 아마추어 강자는 매우 많다. 길림성의 후옥림(侯玉林)과 조선족 김송해(金松海)는 그 대표적 인물이다.

3. 1970년대 말기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중국 대륙은 문화·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 원래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던 바둑시합도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다. 1979년 처음으로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조선족을 초대하는 바둑모임이 생겼다. 모임 이름은 동3성조선족 바둑초청전(东三省朝鲜族围棋邀请赛)이었고 제1회는 길림성 연변에서 주최했다. 대회는 1988년까지 1년에 1회 또는 2회로 진행되었고, 동북3성의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 대회는 본격적 대회가 아닌데다 초청전이었기에 참가자가 비교적 적었다. 동3성조선족바둑초청전은 오국안(吴国安), 오국성(吴国星), 오하도(吴河图), 윤석걸(尹锡杰), 윤석수(尹锡洙), 김철수(金哲秀), 김송해(金松海) 등 유명한 조선족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고, 그 후에도 대회는 줄곧 초청제로 진행되어서 참가자는 많지 않았다.

Ⅲ. 발전기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1984~1992)

1. 중일슈퍼대항전

중국의 현대 바둑사는 중일슈퍼대항전을 빼고 논할 수 없다. 1984년에 개최한 제1회 ‘중일슈퍼대항전(中日围棋擂台赛)’의 前身은 1960년의 ‘중일바둑교류전(中日围棋友谊赛)’이다. 1984년 일본NEC회사에서 ‘중일바둑대항전’보다 더 큰 규모의 시합을 주최했다. 바로 ‘중일슈퍼대항전’이다. 일본 측은 ‘일중슈퍼전’이라 명명했고 중국 측은 ‘중일슈퍼대항전’이라고 명명했다.

모든 중국 현대 바둑사에 기록될 만큼 이 시기 ‘중일슈퍼대항전’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 형식은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을 다투는 바둑 단체전이다. 중국은 섭위평(聂卫平), 마효춘(马晓春) 등 당시 중국 최정상 기사 8명이 출전했고, 일본은 고바야시 고이치(小林光一), 가토 마사오(加藤正夫) 등 일본 최정상 기사 8명이 출전했다. 대항전 초반에는 강주구(江铸久)의 활약으로 중국이 우세를 보였으나, 직후 일본은 고바야시 고이치의 6연승으로 중국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중국 주장 섭위평이 고바야시 고이치에 이어 가토 마사오, 후지사와 히데유키를 연속해서 물리치는 대활약에 힘입어 중국은 ‘제1회 중일슈퍼대항전’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고바야시 고이치의 연승부터 중국 최대 메인 채널 중앙 라디오TV총국(中国中央电视台)의 가장 중요한 채널인 신문연파(新闻联播)가 생방송했다. 이로써 바둑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주목을 끈 체육종목이 되었고, ‘중일슈퍼대항전’은 중국 대부분의 TV 채널, 라디오, 신문에 나올 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현대 중국 바둑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중일슈퍼대항전’은 신기원을 열었다. 춘란배(春兰杯) 창시자 도건행(陶建幸), 응씨배 창시자 응창기(应昌期)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 바둑 애호가들은 모두 ‘중일슈퍼대항전’의 영향으로 바둑을 알게 되었고 바둑대회 지원과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중일슈퍼대항전’은 1996년 11회까지 연승제로 진행되고 나서 1997년부터 1년마다 중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3대3으로 겨루는 형식으로 바뀐 뒤, 아쉽게도

2001년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중일슈퍼대항전’만큼 현대 중국 바둑사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없었으니, 현대 바둑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중일슈퍼대항전이 길림성 조선족 바둑에 미친 영향

‘중일슈퍼대항전’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바둑을 배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길림성에서 소규모로 출발했던 조선족 바둑계에도 바둑학습 열풍이 불었다. 연변대학교 중 수학과에서만 진행되었던 바둑보급은 전교적으로 퍼져 나갔다. 연변1중의 교장 리진성(李眞成)과 연변대학교 공과대학 최승훈(崔承勳) 명예교수는 모두 연변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들이다. ‘중일슈퍼대항전’의 영향으로 연변대학교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고, 후일 조선족 바둑대회를 주최하는 등 조선족 학교에서 바둑 보급이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을 지닌 조선족 아마추어 바둑 강자들도 이 무렵 나타나기 시작했다.

1) 최수복(崔壽福)

현재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즉 광서성에서 바둑 보급을 진행하는 최수복(崔壽福)은 ‘중일슈퍼대항전’의 영향으로 바둑을 시작한 길림성 조선족 아마추어 바둑 강자이다. 최수복은 조선족 아마추어 강자일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도 매우 유명한 아마추어 바둑선수이다. 그는 길림성 장춘시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최경호(崔庚鎬)가 바둑 애호가였다. 최수복은 아버지에게 처음 바둑을 배워 ‘중일슈퍼대항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바둑을 시작했다. 최수복은 홀로 바둑을 시작해 다른 아마추어 강자들과의 대국을 통해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최강자가 되었다. 그는 연길시, 연변 조선족자치주, 길림성에서 열린 조선족 대회와 일반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거두어 길림기왕(吉林棋王)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길림성 최고수가 된 후 광서성 여자와 결혼, 그곳에서 바둑 보

급을 시작해 광서성 대표로 수차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07년 중국 남녕(南宁)에서 개최한 제3회 동남아 국제바둑마스터스초청전(第3届东南亚国际围棋邀请赛)에서 우승을 거두었고, 2022년의 제5회 한장배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남부대회(第五届汉酱杯全国业余围棋大赛南部赛区)에서 준우승을 거두었다. 현재 중국 아마추어 최강자 중 한명인 백보상(白宝祥)은 바로 최수복의 제자이다.

2) 리홍일(李红日)

리홍일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룡정시 로두구진(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龙井市老头沟镇)에서 태어났다. 리홍일선생은 ‘중일슈퍼대항전’전부터 이미 바둑을 시작했고 ‘중일슈퍼대항전’의 영향으로 많은 바둑 애호가들과 바둑 공부를 하고, 최수복과 함께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바둑대회에서 여러 차례 결승전을 펼쳤다. 리홍일 선생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바둑 보급을 하고 2005년에 중국 요녕성 대련시(辽宁省大连市)에서 혁우바둑학교(弈友围棋学校)를 꾸리고 현재까지도 바둑학교를 운영하는 동시에 요녕성 조선족 학교의 방과후 바둑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3.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최초의 조선족 바둑 대회

여명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길림성 조선족 바둑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자주 열 수 있었다. 길림성 내부의 조선족 바둑 모임은 초청제에서 참가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중일슈퍼대항전’의 영향을 받아 1988년 길림성의 모든 조선족에게 오픈한 대회가 생겼다. 대회 이름은 ‘연변주조선족바둑대회’(延边州朝鲜族围棋大赛)이고 규모는 매우 컸다. 그때까지 바둑협회가 없었으므로 연변 조선족자치주정부가 직접 조직하고 여러 스폰서를 찾으며 대회를 후원했다. ‘중일슈퍼대항전’의 영향으로 이때 조선족 아마추어 기사는 매우 많았고, 참가자는 200명에 달했다. 제1회 ‘연변주조선족바둑대회’는 연변 백산호

텔(白山大廈)에서 진행 되었는데 우승은 최수복 선수가 거머쥐었다. 이윽게도 ‘연변주조선족바둑대회’는 정부 책임자 및 스폰서의 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다가 결국 1995년에 중단되었다.

4.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첫 바둑교실

1984년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첫 비영리 바둑교실이 탄생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서우홍 선생이 창립한 조선족과 한족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바둑교실이다. 서우홍 선생은 자신이 취직 한 두도제4중학교의 교실을 사용하여 바둑 보급을 진행했고, 교실 이름은 4중 바둑교실이다. 서우홍 선생은 당시 길림성의 최강자로서 수많은 길림성 아마추어 강자를 양성했다. 한족 아마추어 기사 후옥림(侯玉林)과 조선족 아마추어 기사 김송해(金松海)는 대표적 인물이다. 서우홍 선생이 창립한 바둑교실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첫 비영리 바둑교실이며 그에 힘입어 많은 바둑 애호가들이 생겨났으므로 길림성 조선족 바둑 보급에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우홍 선생이 음주사고로 채 마흔이 되지 않는 나이인 1988년에 세상을 떠난 것은 실로 애석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IV. 도약기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1992~2010)

이 시기는 개혁·개방의 성공으로 중국인들의 경제여건과 사상이 크게 발전했고, 한중수교로 인해 한국과의 교류가 매우 잦았다. 조선족 동포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제적 지원도 있었고 길림성 조선족들에 대한 한국 아마추어 기사의 바둑 보급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한국의 지방 바둑협회와 바둑도장 등은 조선족 바둑협회와 바둑 교류를 하는 동시에 조선족 바둑의 금전적, 기술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조선족 바둑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중국 한족 지방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에 힘입어 길림성 조선족 바둑계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자리를 잡은 조선족 바둑 애호가들은 바둑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학교와 정부 등에 취업한 조선족 바둑 애호가들은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바둑교육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바둑을 학교에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조선족 바둑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작년까지 어떤 대회는 연수로 30년, 회수로 25회 운영할 만큼 도약기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은 매우 큰 성장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1. 한중수교

1992년 한중수교는 중국과 한국 양국에게 크나큰 사건이다. 개혁·개방 10년을 넘긴 광대한 중국 대륙에서 기회를 찾는 한국과 선진적인 기술과 부유한 자분을 바라보는 중국 모두에게 도전적인 사건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한국을 잇는 요충지가 되었다. 한국과의 수교로 길림성의 경제, 문화, 교육 등 많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바둑도 마찬가지다. 제1회 ‘응씨배’ 우승으로 한국은 갑자기 세계 정상으로 우뚝 서고 ‘중일슈퍼대항전’에서 일본을 꺾은 중국은 자만할 시간도 없이 한국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1) 안병훈

안병훈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영업한 한국 상인이다. 그는 당시의 한국 아마추어 강자로서 길림성의 대부분의 조선족 아마추어 기사에게 이기는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당시 길림성 최강자 최수복도 안병훈한테 밀리는 지경이었다. 안병훈은 길림성에서 2년 장사를 하며 바둑 모임에 자주 참가해 당시 길림성 조선족 아마추어 선수인 최수복, 최명룡 등을 가르쳤다. 안병훈의 가르침으로 길림성 조선족의 바둑 실력은 한층 더 진보했다.

2) 김광재

“지난 2005년 조선족바둑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또 조선족 어린이들의 과외 생활을 풍부히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변바둑협회와 손잡고 설립한 《연길천재바둑도장》은 그동안 무려 600여명의 원생을 배출했다. 그중에는 중소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심지어 성인까지 포함돼있어 그야말로 연변조선족바둑기지의 중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중국조선족바둑문화 세상에 알릴터’ - 2008년 길림신문
연길천재바둑도장 김광재 원장에 대한 인터뷰에서>

길림성 조선족 바둑 보급에서 김광재 원장만큼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광재 원장은 2005년부터 조선족 학생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2019년까지 총 2500여 명의 조선족 기사를 양성했다.

<1> 포항시 바둑협회와 연길 바둑협회의 우호교류

김광재 원장은 2001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왔다. 그는 처음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延边朝鲜族自治州安图县)에 위치한 장백산(백두산)에서 여관을 경영했다. 김광재 원장은 한국 포항시 출신으로 당시 포항시 바둑협회와 연변바둑협회의 우호교류를 추진했다. 2002년부터 시작한 1차 연변바둑협회와 포항시 바둑협회의 교류는 연길시에서 시작되었다. 대회 이름은 ‘동시미용성배 연변·포항 중한 아마바둑대회’였고 연길시 백산호텔에서 진행되었다. 그 후로부터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연변바둑협회가 포항시로 방문하고, 포항바둑협회는 연길시로 방문하는 상호 바둑우호교류가 생겼다.

포항시와 연길시의 바둑교류는 2010년에 들어와서 중지되었지만, 포항시와 연길시의 우호협력 관계는 바둑에서 경제와 해외진출 등 다른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포항 상공회의소는 연길시 한인무역협회와 ‘상호지원교류협약서’를 체결하여 포항시와 연길시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고, 포항시 정부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훈춘(珲春)시와 자매우호 교류도시 협약도 체결했다. <표2>는 포항시와 길림성의 우호교류 연표이다.

<2> 연길시에서의 바둑 보급

2005년 외국인의 중국 경내에서의 여관 운영에 대한 금지 정책이 실시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김광재 원장은 바둑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2005년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바둑학원은 4곳 정도였는데 원장은 모두 한족이다. 당시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아마추어 강자들은 남녕시, 대련시 등 전국 곳곳에 산재해 연변 조선족자치주에는 최명룡만이 남아 있었다. 최명룡은 연변 담배공장의 직원으로서 바둑 보급을 할 여유가 없었다. 한족과 조선족간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한족 원장에게 바둑을 배우는 조선족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이 시기 김광재 원장은 연길천재바둑학원을 설립했고 중국어가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집한 학생 10명 중 9명이 조선족이었다.

<표2> 포항시와 길림성 우호교류 연표

우호교류주제	연도	장소	주최측
연변·포항 중한아마추어바둑대항전	2002	연길시	연변바둑협회, 길림성 조선족 바둑협회, 포항 바둑협회, 동성미용원
도시대항 바둑교류전	2004	포항시	연변바둑협회, 포항 바둑협회, 경북케이بل방송
킨스백 중국연변-한국포항바둑대항전	2005	연길시	연변바둑협회, 길림성 조선족 바둑협회, 포항 바둑협회, 킨스백맥주회사
포항시와 훈춘시 자매우호도시 체결	2008	훈춘시, 포항시	포항시정부, 훈춘시정부
포항시와 장춘시 자매우호도시 체결	2010	장춘시, 포항시	포항시정부, 장춘시정부
포항시와 한인무역협회 연길지회 경제교류	2015	포항시	포항상공회의소, 연길시 한인무역협회
연길국제학교-포항제철공고 현장학습 협약	2019	연길시	포항제철공고, 연길국제학교

당시에는 체계적인 바둑 교육시스템이 없었고, 바둑 강사 대부분의 교육수준도 매우 낮았다. 심지어 수업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에 취해 바둑을 가르치거나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형기를 마치고 일자리가 없어서 바둑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많았다. 김광재 원장은 당시 이미 체계적인 바둑교육을 갖춘 포항 이성호(現경북바둑협회 부회장) 바둑교실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훨씬 선진적인 바둑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연길천재바둑학원의 학생들의 기력은 다른 학원에 비해 급속히 성장하는 동시에 바둑 강사에 대한 교육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광재 원장은 당시 유창혁 바둑도장의 교재를 사용하여 중국 최초로 유창혁 도장의 우수한 교재를 조선족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김광재 원장은 또한 위에 언급한 오국안, 오국성, 김송해, 윤석걸 등 조선족 노인들을 초대하여 학원의 학생들과 대국하게 했다. 이때 오국안, 오국성을 비롯한 조선족 노인들의 나이는 60~80대까지였다. 이분들은 퇴직 후 여가가 많고 바둑을 사랑하며 차세대 조선족 바둑인을 양성하고 싶은 바람 등 다양한 이유로 일주일에 2~3회씩 천재바둑학원의 학생들과 대국하고 복기해주었다. 바둑을 잘 두는 조선족 노인을 모시는 전략은 다른 한족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3> 조선족 학생의 한국 도장 유학

김광재 원장은 천재바둑학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한국 바둑계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김광재 원장은 조선족 학생을 전문적인 바둑도장으로 유학시키는 꿈이 있었다. 그는 2007년 초에 유창혁 바둑도장과 상의하고 2007년 11월에 당시 천재바둑학원의 조선족 학생 리철화(李铁华), 리규한(李奎翰)을 유창혁 바둑도장으로 2년 동안 유학 보냈다. 유창혁 바둑도장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조선족 학생을 받고 전문적인 바둑을 가르치는 동시에,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바둑 해외 유학을 보낸 사건이다. 리철화와 리규한은 유창혁 바둑도장에서 바둑을 배우고 한국에 있을 때 각각 한바연3조, 한바연1조로 올라갈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리규한은 2009년 강릉에서 열린 ‘웅진씽크빅 2009 강릉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에서 ‘선교장조’의 우승을 거둔 정도로 조선족 아마추어 강자로 부각했다. 유창혁 도장에서 공부한 리철화, 리규한 외에도 조선족 선수 김혜명, 허준 등은 각각의 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중국 길림성 조선족 바둑계의 명예를 크게 떨쳤다.

김광재 원장은 리철화와 리규한을 유창혁 도장으로 보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09년 1월에 리성우(李成禹)를 양재호 바둑도장(현재 충암 바둑도장으로 병합)으로 바둑 유학을 보냈고, 그에 부응해 리성우는 한바연1조까지 올라갔다.

한중수교 전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은 서우홍 선생이 기초를 마련했다면, 수교 후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발전을 논할 때 한국인 김광재 원장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대륙에서 조선족들에게 바둑 보급을 하고 학원을 설립하고 교육 허가를 받은 한국인은 오직 김광재 원장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중국 대륙에서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교육은 정책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광재 원장은 여러 해 동안 길림성 조선족 바둑 보급에 공헌했기에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는 이를 인정, 유일하게 김광재 원장한테 교육 허가를 주었다. 정부마저 인정할 만큼 김광재 원장은 길림성 조선족 바둑 보급의 최대 공로자라고 불러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2. 길림성 정부 및 학교의 지원

1) 조선족 학교의 ‘방과후’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조선족들이 받는 교육과 한족들이 받는 교육은 다르다. 조선족은 조선족만 다닐 수 있는 조선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연길시 중앙소학교(延吉市中央小学)는 1915년에 창립한 중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전형적인 조선족 초등학교이다. 중앙소학교는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연길시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로 학생들은 다양한 방과후 종목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소학교의 학생들은 3시 30분에 수업

을 마친 후 1시간 동안 바둑, 수영, 태권도, 축구 등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중 중앙소학교의 바둑 방과후는 학교에서 주동적으로 추동할 만큼 매우 중심적인 종목이다.

중앙소학교의 당시 교장 천미숙(千美淑)은 바둑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바둑은 두뇌스포츠로서 학생들의 과외를 충실하는 동시에 지력(IQ)를 향상하고 중국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최고의 게임이다”라고 평가하고 주동적으로 학교 방과후를 추진했다. 그는 천재바둑학원, 영재바둑학원의 강사를 중앙소학교로 초빙하여 바둑 방과후를 진행하고 여러 차례 바둑 시합을 조직했다.

2011년 중앙소학교는 연변 조선족자치주정부에서 선포한 첫 ‘바둑보급기지교(围棋普及基地校)’이다. ‘바둑보급기지교’로서 중앙소학교의 바둑은 방과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1, 2학년의 수업으로 개설했다. 이것은 조선족 바둑 보급을 추진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다.

중앙소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족 초등학교들도 방과후 바둑 보급을 실시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연길연남소학교(延吉延南小学), 연길건공소학교(延吉建工小学), 연변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소학교(延边大学师范学院附属小学)에서도 방과후 바둑 보급을 진행했고, 대회도 여러 차례 열었다. 아쉽게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길림성 조선족 학교들의 바둑을 비롯한 방과후 과목들은 현재(2022년)까지 중단되고 있다.

<표3> 조선족 학교의 방과후 연표

학교	시간	진행방식
연길 연남소학교	2011-2016	- 학교 정규과목이 끝나는 3시30분에 각 교실에서 외부강사가 1시간 동안 바둑 보급
연길 건공소학교	2010-2019	- 학교 정규과목이 끝나는 3시30분에 각 교실에서 외부강사가 1시간 동안 바둑 보급
연변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소학교	2012-2019	- 학교 정규과목이 끝나는 3시30분에 각 교실에서 외부강사가 1시간 동안 바둑 보급 - 학교와 바둑학원이 같이 학교 바둑 대회 조직

연길 중앙소학교	2006-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정규과목이 끝나는 3시30분에 각 교실에서 외부강사가 1시간 동안 바둑 보급 - 2011년부터 바둑은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들어감 - 학교 바둑 대회를 조직
----------	-----------	--

2) 길림성 조선족바둑협회의 설립

1988년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첫 조선족 바둑대회가 열리고 4년 후 1992년 길림성 장춘시에서 첫 길림성 조선족 바둑대회가 열렸다. 대회 이름은 ‘길림성조선족바둑대회(吉林省朝鲜族围棋大赛)’다. 당시 길림성 각 곳의 조선족 바둑선수가 거의 400명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대회기간 조선족바둑협회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자 장춘시, 연변 조선족자치주, 통화시 등에서 모인 바둑 애호가들이 모두 동의했다. 우선 당시 대회 참가자의 10/1에 가까운 38명을 이사로 확정하고, 9명을 책임자로 선출했으며 임시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때로부터 1년여의 꾸준한 노력 끝에 1993년 8월에 길림성체육총회(吉林省体育总局)의 허가를 받고 법인단체인 길림성조선족바둑협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길림성 조선족바둑협회장은 김수영으로 선정되고 당시 주요 멤버인 김송해, 오국태(吳國泰), 정기룡(鄭起龍), 장하진(張河珍), 윤석걸, 박충식(朴忠植) 등은 유명한 길림성 조선족 바둑애호가이다. 그들은 여러 차례 스폰서를 받거나 자신의 돈으로 조선족 노인바둑대회와 조선족 어린이바둑대회를 주최했다.

3. 가장 오래된 조선족 바둑시합

위에 언급한 길림성 조선족바둑협회에서 주최한 ‘중국 조선족 노인바둑대회’는 1993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29년 동안 총 25회 진행했다. 스폰서를 못 찾거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차례 취소되었지만,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족 바둑시합이다. 이 대회는 중국의 모든 조선족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바둑대회다. 길림성외에도 요녕성, 흑룡강성의 조선족 노인 선수들이 참가하지만, 절반 이상은 길림성 출신 조선족 노인들이다.

제1회 ‘중국 조선족 노인바둑대회’는 길림성 장춘시에서 진행하고 그 후에는 요녕성 단둥시(丹東市), 연길시, 길림시 등 동북3성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2007년 전의 ‘동북3성조선족로인바둑경기’의 기록을 찾지 못했고, ‘조선족로인바둑경기’는 코로나 이후 ‘체육복권컵’ 원로바둑경기로 이름을 바꾸었다.

<표4> 중국 조선족 로인바둑대회 연표

횟수 및 대회명	연도	장소	우승	준우승
제10회 동북3성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07	단둥시	김병오(심양)	문원태(심양)
제11회 동북3성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08	연길시	윤철수(연길)	윤석걸(연길)
제12회 동북3성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09	심양시	김병오(심양) 최경호(연길) 공동1등	윤석걸(연길)
2010년중국조선족로인바둑대회	2010	장춘시	윤석걸(연길)	김려삼(단둥)
제15차 중국조선족로인바둑대회	2012	장춘시	김대용(통화)	림명걸(장춘)
제16회 중국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13	연길시	최경호(길림)	김병호(심양)
제17회<진흥컵> 중국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14	장춘시	최경호(길림)	원운철(장춘)
제18회 중국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14	장춘시	최경호(길림)	윤석걸(연길)
제19회 중국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15	길림시	최경호(길림)	림명걸(장춘)
제20회<청산컵> 중국조선족로인바둑대회	2016	장춘시	최경호(길림)	윤석걸(연길)
제21회 중국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17	장춘시	최경호(연길)	박신덕(길림)
제22회 중국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18	장춘시	권종영(심양)	최경호(길림)
제23회 중국조선족로인바둑경기	2019	장춘시	민운기(통화)	안성광(통화)
2021년 ‘체육복권컵’ 원로바둑경기	2021	연길시	최명학(왕청)	조경원(연길)
2022년 ‘체육복권컵’ 원로바둑경기	2022	연길시	전수강(연길)	최명학(왕청)

V. 쇠퇴기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2010~2022)

이 시기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은 2000년대 초기의 도약에서 급속히 쇠퇴하는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천재바둑도장의 폐업, 코로나와 인구감소로 인한 정부와 학교의 바둑 지원 감소, 중국에서 실시한 계획출산정책(计划生育)과 소수민 통일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하려는 정책, 동북3성의 경제여건 악화 및 인구유출 등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다.

1. 중국정책

1953년 중국대륙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로 중국 인구는 6억에 도달했고, 1964년에 실시한 제2차 인구조사에서는 7.23억 명, 1969은 8억 명에 도달했다. 1970년 초기 중국 대륙에서 계획출산정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 등소평(邓小平), 진운(陈云), 화국봉(华国锋) 등 공산당 임원들의 추동으로 ‘한 부부는 한 아이만 가질 수 있다(一对夫妇只生育一个孩子)’는 구호를 외치면서 공식적인 계획출산정책이 실시되었다. 계획출산정책은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피임 목적으로 부부 중 한 명에게 강제적으로 결찰하고, 아이가 있지만 임신한 경우 강제로 유산을 시키는 조치 등의 인권 침해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중국 경제학자 좌학금, 양소평(左学金, 杨晓萍)은 출산에 대한 강제조치는 20년에서 30년 후에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데이터를 근거로 계획출산정책으로 중국 인구가 4억 명 감소하리라 예측했다.

일부 소수민족 자지구와 자치주의 소수민족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지만, 계획출산정책은 동북3성의 조선족들에게도 매우 큰 타격을 주었다. 1980년대 조선족들의 경우 3~8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게 매우 흔한 일이었지만, 계획출산정책 시행 후 대부분의 조선족 가정은 한 명의 자녀만 갖게 되었다.

2020년에 실시한 제7차 인구조사 중 조선족은 2010년에 실시한 제6차 인구조

사에 비해 약 13만 명이나 감소되었다. 조선족 신생아 부족으로 바둑을 배우는 아이는 절대적으로 적어지고 신생아가 감소된 지역 정부와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원은 적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계획출산정책은 인권 침해, 생산력 부족, 인구 노령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중국 내부와 외국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뒤늦게 형세를 판단한 중국 정부는 2013년 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2021년에는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출산정책 기조를 전환했지만, 이미 초기 계획출산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노령화 문제, 생산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 외에도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으로 이주한 길림성 조선족이 매우 많다. 그중 소수는 중국의 상해, 저장성 등 남쪽 지역으로 이주하고 대부분은 경제가 좋은 한국으로 이주했다. 제7차 인구조사에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은 제6차 인구조사 때보다 무려 18.74%나 감소했다. 조선족 인구유출과 신생아 저출산은 조선족 바둑에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대학교 입시(高考)의 경우 일부 소수민족 지역과 한족 지역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다르다. 한족 지방에서의 시험은 모두 중국어를 사용하고 어문(语文)은 중국어 시험을 치른다. 반면 일부 소수민족은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고, 어문 중 절반은 모국어, 절반은 중국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족 지역보다 수월하다. 그리고 소수민족은 소수민족 학교를 설립하여 모국어로 강의를 하거나, 소수민족 지역 대부분의 간판은 자국 언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0년 전까지 중국은 여러모로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강화했지만, 습근핑(习近平)이 2012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오르면서 소수민족을 정책적으로 약화시키고 한족과 동화시키려는 경향이 노골화되었다.

이러한 소수민족 통일정책을 중국공산당對소수민족의통일전선정책(中国共产党对少数民族统一战线政策)이라고 부른다. 이 정책에서는 주로 소수민족의 민족 및 종교사무 등을 언급한다. 즉 소수민족의 종교적 사상을 약화시키고 열 나라나 같은 민족 나라에 대한 관계를 약화시키며 애국주의를 매우 선전하는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말을 정신적 지도로 견지하고 중화대민족 통일전선을 확고

히 하는 등 민족대융합을 시도하는 등의 구체적 정책이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소수민족에 속하는 조선족도 불가피하게 민족적 특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차에서 6차까지 실시되었던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각 지역의 조선족 분포가 7차 인구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조선족의 인구만 있을 뿐, 구체적 지역의 비율과 분포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조선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도 마찬가지다.

2. 2010년 이후의 길림성 조선족 바둑

2010년 초반까지 길림성 조선족 바둑은 도약기 때와 비슷하게 활발히 운영되었으나, 2010년 후반 무렵에는 급격히 쇠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수십 년 전의 정책으로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그 정책들이 초래한 영향이 2010년 후반에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1) 프로기사 이관철

한국 프로기사 이관철(2018년 별세)은 2012년부터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들어와 2015년까지 연변 천재바둑도장에서 바둑을 보급했다. 이관철은 1991년 10월 제63회 입단대회를 통해 입단했고, 2007년 7월에 4단으로 승단했다. 이관철 4단은 한국에서 조한승, 이춘규, 김신영 등 한국기사의 스승으로 유명한 만큼 강의 능력도 좋았다.

이관철 4단은 천재바둑도장에서 바둑을 가르치며 바둑 방과후를 진행하는 조선족 초등학교의 초대로 강의를 했다. 인터뷰에 의하면,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이관철 4단의 강의방식은 온유한 동시에 바둑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호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아쉽게도 이관철 4단은 질병 치료 2015년에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떠나 한국으로 귀국했고 2018년에 별세했다.

2) 천재바둑도장의 폐업

천재바둑도장은 길림성 조선족 바둑 보급에 가장 큰 공을 세운 학원이다. 천재바둑도장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년의 세월에 걸쳐 조선족 바둑 유단자를 2,500명 정도 양성했다. 한국인 신분인 김광재 원장의 공헌은 길림성 조선족 바둑기사를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포항바둑협회와 길림성 바둑협회의 우호 교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조선족 학교에서 바둑 방과후를 통한 바둑 보급과 길림성 조선족 대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길림성 조선족 바둑계를 지원했다.

2019년 김광재 원장이 한국으로 귀국함으로써 천재바둑도장은 폐업했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선족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한국 교육을 가르치는 곳은 사라졌다. 그 결과 길림성의 조선족 학생들이 바둑을 배우려면 교육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박약한 한족 바둑학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와 언어 등의 측면에서 배타적 요소를 감수해야 했기에 바둑을 배우려는 조선족 학생들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3) 정부 및 학교의 지원 감소

2016년부터 길림성 조선족 학교에서 바둑 방과후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학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학생 수에 달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원은 1명의 학생 당 1인 지원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출산정책, 동북3성 인구유출 등의 원인으로 조선족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중앙소학교 1학년 한 반의 평균 학생 수는 2010년에 37.2명에 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29.7명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길림신문).

따라서 학교에서 바둑 방과후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길시 연남소학교는 2016년에 바둑 방과후를 취소했고 연길시 중앙소학교 외 세 학교는 수는 감소했지만 계속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에 시작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현재(2022년)까지도 바둑 방과후는 중단된 상황이다.

VI. 결론

이 연구는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선족 출판사에서 출판한 <길림신문>, <연변TV라디오방송국> 등의 간행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길림성 조선족 바둑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정치적, 사회적 이벤트, 중요한 인물 및 사건, 조선족 바둑계 참여 변화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발전과정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길림성 조선족 바둑의 역사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단계별 특징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명기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명확한 조선족의 정의와 지역구분이 생겼다. 이 시기의 조선족 바둑인들은 해방 전 일본인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고 따라 배웠다. 해방 후부터 중일슈퍼대항전까지 대약진, 정풍운동, 문화대혁명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으로 조선족 바둑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 시기부터 바둑 보급과 사적인 바둑 모임이 발견되는 점에 미루어볼 때 길림성 조선족 바둑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발전기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8년 개혁·개방으로부터 시작되어 1984년 중일슈퍼대항전으로 절정을 이룬다. 중일슈퍼대항전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바둑 열풍이 불었고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조선족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바둑교실도 생겼다. 바둑보급이 열렬하게 진행되면서 조선족끼리만 진행되는 바둑대회도 생겨났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여러 차례 진행한 동북3성 조선족 바둑 모임에는 당시 조선족 아마추어 최강자들이 모였고, 그 참가자는 나중에 조선족 바둑대회 및 보급의 중견이 되었다.

셋째, 도약기는 1992년 한중수교 후 시작되었다. 한중수교 후 수많은 한국인은 대륙으로 넘어와 기회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중에도 바둑을 가르치는 원장이 있었고 한국과 조선족의 언어가 비슷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선족 바둑인을 많이 양성했다. 그리고 한국 바둑계와 길림성 조선족 바둑협회를 연결하여 여러

차례 교류를 진행했다. 바둑을 가르치는 한국 원장은 최초로 유창혁 바둑도장과 양재호 바둑도장에 유학생을 보낸 선례를 남겼다.

이 시기에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와 조선족 학교는 공식적인 조선족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가 주최한 첫 공식적 조선족 바둑대회 ‘연변주조선족바둑대회’는 1998년부터 1995년까지 진행되었고, 학교에서는 바둑을 방과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과목으로 선정했다.

넷째, 쇠퇴기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다. 다양한 쇠퇴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동북3성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북3성의 純 유출인구는 1101만명에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0%내외가 중국의 다른 도시나 외국, 특히 한국으로 거주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선족 인구의 감소는 조선족 바둑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 외에도 공산당의 ‘소수민족 통일전선’ 정책으로 조선족의 민족 특성 약화를 꼽을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

남치형. 바둑의 역사. 명지대학교출판부, 2017.

배가균. 린편시 바둑의 발전 과정,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왕탁. 중국 베이징, 상하이, 우한시의 아동바둑 교육실태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조선오. 현대 한국 여성바둑의 발전과정,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홍흥표. 베트남바둑의 역사 및 현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중문」

- 葛腾. 中国共产党对延边朝鲜族的统一战线政策研究[D]. 青岛科技大学, 2015.
- 李成龙. 中国朝鲜族民俗体育文化发展研究[D]. 延边大学, 2018.
- 尹玲. 实施“单独两孩”政策对吉林省人口发展的影响[D]. 吉林大学, 2015.
- 崔庆植. 全球化背景下的思考: 中国民族政策及朝鲜族历史、现状与未来[D]. 中央民族大学, 2004.
- 范妍妍. 党的民族团结政策在延边朝鲜族自治州的实践研究[D]. 延边大学, 2019.
- 左学金, 杨晓萍. 生育政策调整势在必行[J]. 中国改革, 2010(5):3.
- 何云波(2020). 「论围棋史体系的构建与《中国围棋通史》的撰写」
- 刘善承(1985). 「中国围棋」蜀蓉棋艺出版社
- 刘善承(2007). 「中国围棋史」成都时代出版社
- 孙德常(2021). 「建国初期围棋珍贵资料的整理与研究: 以北京棋研社为例」杭州国际棋文化峰会.
- 何云波(2019). 「世界围棋通史」湘潭大学出版社.
- 林建超(2018). 「围棋与国家系列丛书」经济科学出版社.

「신문 및 사이트」

- 길림신문 - <http://www.jlcnwb.com.cn/>
- 연변TV라디오방송국 - <http://www.iybtv.com/>